생전예수재 49일 기도 봉행

법주사에서는 살아 있는 동안에 공덕을 미리 닦아 사후에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불교의 수행의식인 “생전예수재 49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생전예수재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수행과 회향을 실천하는 “자리이타행”으로 살면서
지은 죄와 빚을 갚는 의식으로 자신의 업을 참회하고 앞으로 악업을 짓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보시를 통해 공덕을 쌓는 의식입니다.
또한 단순한 신앙이 아닌 신행信行으로 스스로 실천하는 불교의 가장 적합한 실천행으로써
불자라면 반드시 동참해야 할 의례입니다.
속리산 법주사에서는 계묘년 윤2월에 맞춰 생전예수재를 봉행합니다.
생전예수재라는 인연을 통해 법주사 불자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회하며
함께 보시하는 공덕을 통해 스스로 복을 짓고 스스로 복을 받는 불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생전예수재 봉행일정**

- 입재 : 2월 20일 (음력 2월 1일) 월요일
- 1재 : 2월 26일 (음력 2월 7일) 일요일
- 2재 : 3월 5일 (음력 2월 14일) 일요일
- 3재 : 3월 12일 (음력 2월 21일) 일요일
- 4재 : 3월 19일 (음력 2월 28일) 일요일
- 5재 : 3월 26일 (음력 윤2월 5일) 일요일
- 6재 : 4월 2일 (음력 윤2월 12일) 일요일
- 회향 : 4월 9일 (음력 윤2월 19일) 일요일

■ **동참금** : 1인 100,000원 (농협 403020-51-010482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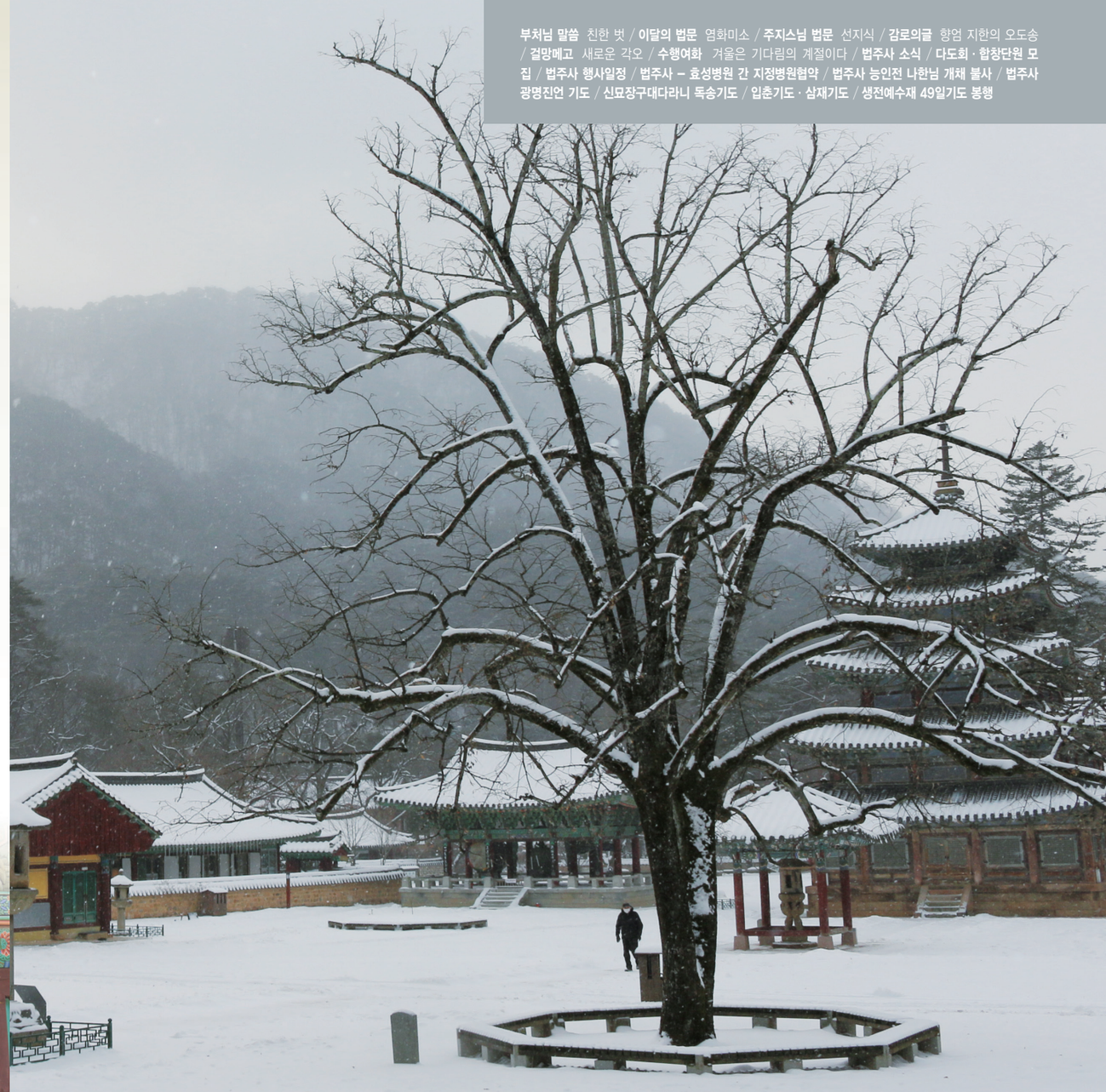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3 | 2

부처님 말씀 친한 벗 / **이달의 법문** 염화미소 / **주지스님 법문** 선지식 / **감로의글** 항엄 지한의 오도송 / **걸망메고** 새로운 각오 / **수행여화** 겨울은 기다림의 계절이다 / **법주사 소식** / **다도회 · 합창단원 모집** / **법주사 행사일정** / **법주사 – 효성병원 간 지정병원협약** / **법주사 능인전 나한님 개채 불사** /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 **입춘기도 · 삼재기도** / **생전예수재 49일기도 봉행**



친한 벗

친한 벗 가운데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꽃과 같은 벗이 있으니,
꽃은 필 때는 꺾어서 머리에 꽂기도 하고 사랑하다가
시들었으면 버려서 돌보지 않는 것과 같이 돈 있고 귀한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돈 없는 천한 사람에게는 본체 만체하는 것을 화우華友라고 한다.
칭찬을 하는 벗이니,
칭찬하다 하는 것은 물건이 무거우면 낮아지고 물건이 가벼우면
높이 치올리는 것 같이 주는 것이 있으면 공경하고 주는 것이 없고
얻어 가게 되면 곧 교만심을 부리는 것을 칭우稱友라고 한다.
산과 같은 벗이 있으니,
산과 같다고 하는 것은 가령 금산金山과 같아서 많은 새와 짐승들이 모여들면
털과 깃이 금빛이 나는 것과도 같이 내가 귀하게 되면
자기 때문에 잘된 것같이 기뻐하는 것은 산우山友라고 한다.
또한 땅과 같은 벗이 있으니,
땅과 같은 벗이라 하는 것은 백 가지 곡식을 모두 다 이 땅에서
나면 보물도 땅에서 나고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는 것이 많은 고로
지우地友라고 하나니라.

〈발경초〉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3 2 | 통권 37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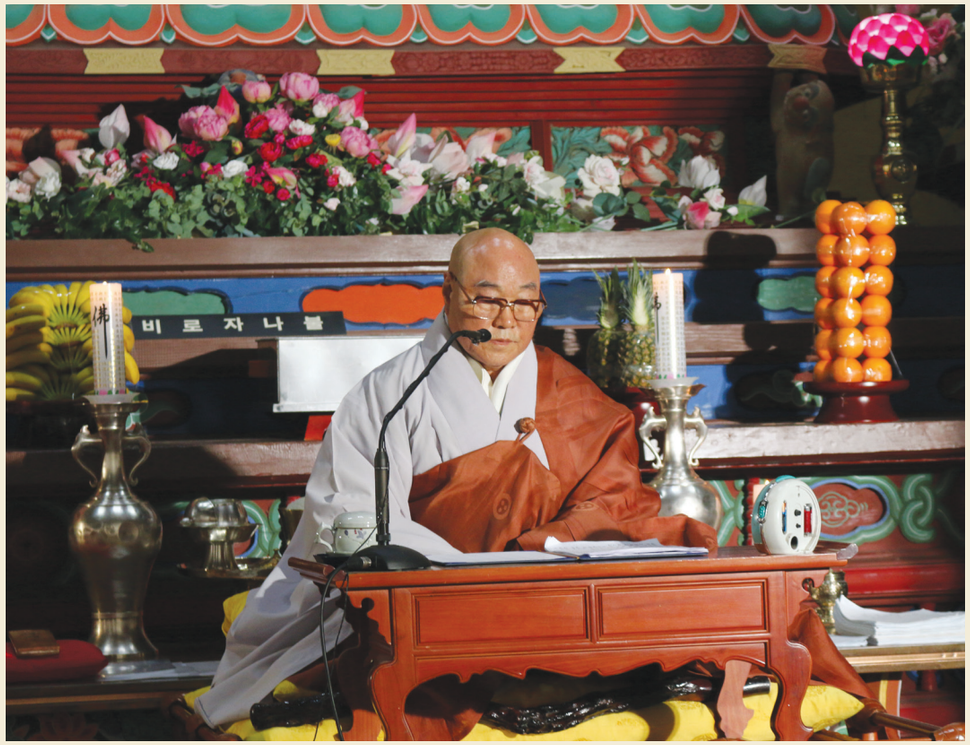


2 부처님 말씀 친한 벗
4 이달의 법문 염화미소 법주사 조실 월서 대종사
8 주지스님 법문 선지식 정도 스님
10 감로의글 향엄 지한의 오도송 장산 스님
12 걸망메고 새로운 각오 진정 스님
14 수행여화 겨울은 기다림의 계절이다 현진 스님
18 법주사 소식 / 다도회 · 합창단원 모집
19 법주사 행사일정
20 법주사 – 효성병원 간 지정병원협약
21 법주사 능인전 나한님 개채改彩 불사
22 법주사 광명진언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23 입춘기도 / 삼재기도
24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봉행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7(단기4356)년 2월호 통권 373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도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무경 / 편집위원 · 김경래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염화미소

월서 대종사 법주사 조실



금오대선사 법어

법계法界의 이치를 깨닫고 우주를 보면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각성覺性이요, 둘째는 삼라만상의 유상有相이요, 셋째는 무형無形한 허공이다.
그러한 물체에 있어 오직 마음만이 주主가 되나니,
만일 사람이 마음의 주인을 알기만 한다면 만 가지 이치를 한 번에 통할 것이다.
각성覺性은 상주 불변하여 겁외劫外에 초연하고 자유롭지만,
삼라만상의 유상有相은 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해서 고통스러울 뿐이며,
또 무형한 허공은 물체가 아닌 듯해 보이지만 그것도 심리작용으로 변천된 허공인 것이다.
그리고 마음은 만법萬法의 본원本源이며, 만화萬化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생이 닦아나가는 향상向上의
도정道程에 있어서도 만일 마음공부를 하지 않으면 불법 진리는 체달體達하지 못할 것이다.
저 형형색색과 천차만별의 이치라든지, 천경千經과 만론萬論에서 거론된 것 등이
모두 한마음을 밝히는 데서 풀어질 것이며, 제불제조諸佛諸祖도 오직 일심법一心法을 전하여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을 깨우쳤다. 이렇듯 일체 만법의 근원은 마음이며
마음에서 일체가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그러므로 일심一心으로써 종宗을 삼아야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근본심이 흔들리면 허망한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갖가지 과보를 받게 된다.
즉 삿된 마음이 많은 이는 여우가 될 것이고, 속이기를 잘하는 이는 미치광이가 될 것이고,
독한 마음이 많은 이는 독사나 호랑이가 될 것이고, 탐하는 마음이 많은 이는 가난의 과보를 받을 것이다.
욕심이 많은 이는 아귀가 될 것이고, 살생을 많이 하는 이는 단명短命하고 병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인과 법을 철저하게 믿어 내생에 선보善報를 받아 나게끔 선업善業을 지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본래심本來心을 깨치고자 온갖 성심성의를 다해
선지식 앞에 공양 예배를 하되 교만과 자만심을 없애고 텅 빈 마음으로 법을 들어야 한다.
만일 한 구절이라도 듣지 못했던 법을 듣고 기뻐하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七寶를 갖고
보시한 공덕보다도 뛰어나고 나을 것이다. 그리하여만 가지 이치가 본시에 계합되면
유심조唯心造의 도리는 절로 알게 될 것이다.
저 날짐승과 길짐승이라든지 물고기 자라 곤충 벌레 등도 당초의 한 생각이 잘못되어
갖가지 모습을 받아 나게 된 것이니, 그러므로 마음 밖에 부처가 따로 없는 것이며,
또 부처 밖에 마음이 별달리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제 머리를 두고 먼 데서 제 머리를 찾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고 잠잠하고 움직이고 조용히 하는 것들이 모두 마음이며,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도 마음이며,

노래 부르고 춤추며 웃는 것도 다 마음인 것이다.
이 마음이 범부도 되고 성인도 되는가 하면, 삼계에 윤회하여 천만 가지로 과보를 받게 되나니,
다 심식心識의 환변幻變인 것이다. 아, 가련하구나. 마음의 고향을 떠난 중생이여.
얼마나 많은 부모 형제, 처자, 권속들이 서로서로 번갈아 가면서 아비는 자식을 생각해 부르짖고,
자식은 아비를 생각해 곡을 하며, 이렇게 형은 동생을 동생은 형에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에게로 얼마나 숱하게 곡을 하여 왔던가.
이러한 쓰라린 과보는 깨달음을 등지고 티끌에 합해 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니
자심自心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제취諸趣에 돌아다니면서 천만의 형용形容으로
업보를 받아낼 것이다.

'마음 짓는 이치' 주제의 법문이 게재된 1978년 7월 16일 자 불교신문.

불자들이여! 불법은 다만 마음을 돌려 비춰 보는 데 있는 것이니
마음을 반조하지 못하면 바깥 물物에 쫓기고 전도顚倒되어 억겁토록
고향에 돌아가지 못해 부자유함이 한정 없을 것이니 그 괴로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한번 머리를 돌이켜보라. 비로자나 청정법신은 잠깐 일념一念에 착한 마음을
일으키더라도 법신法身은 따라 나타날 것이요, 일념에 악한 마음을 일으키더라도
법신은 역시 따라 나타날 것이며, 내지 청 · 황 · 적 · 백의 색처色處에도 나타날 것이고,
공공적적空空寂寂한 곳에도 나타날 것이니,
이러한 법리法理를 어찌 부처님들께서만 미루어 둘 일이랴.
모든 것이 다 일념의 공심空心이지만 마음의 형용을 보기란 어려운 것이다.
비유하면 바닷물에는 짠맛이 있을 것은 뻔한 일이지만, 맛을 잡아낼 수가 없듯이,
사람이 개개의 심체心體도 허허虛虛한 허공과 같아서 모양이나 빛깔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볼 수 없건만 참(眞)을 잊고 외형에 사로잡힌 까닭에
공연히 외형상으로 찾아보려는 생각을 내게 되는 것이다. 이 어찌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아무리 제 마음의 형상을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 없으니, 볼 수 없는 마음을 사무쳐 보라.
그리고 바꾸라. 나귀의 똥을 갖고 안주眼珠와 바꾸어라. 안주와 바꾸기만 하면
안광眼光이 햇빛처럼 반짝하여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비추어 모든 법을 다 통달할 것이며,
마음과 마음이 도道와 계합되어 삼라만상의 물상物像 그 어느 곳에서든지 부처를 만나고
조사를 만날 것이다.
일체 만법이 다 마음으로 쫓겨나고 멸하나니, 제발 마음을 관觀하라.

마음을 관하는 이는 죽고 사는 데서 벗어날 것이오,
관하지 않는 이는 죽고 사는 생사에 영원히 빠질 것이다.
그러나 본마음만 보면 만사를 해결해 마치는 것이니, 만사와 만 가지 이치가
모두 마음이 움직이는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삼세三世의 모든 부처님도 마음을 깨쳤었고
삼세의 보살도 마음을 배웠으며, 역대의 모든 조사님과 천하의 납승衲僧들도
이 마음의 근원을 깨닫고자 하였다. 팔만대장경도 모두 마음을 발현한 것이니,
즉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남쪽으로 나아가 53 선지식을 두루 참방하여
선지식들에게 배움을 청한 것도 마음을 깨닫기 위한 것이었다.
오명悟明한 옛사람이 말씀하기를 "나는 대법大法에 왕이 되어 법에 온통 자재하며,
지옥을 변동시켜 천당을 만드는 것도 내 마음의 작용에 달렸다"고 하였다.
이렇듯 선악의 작용도 다 마음이니 마음을 먼 데서 찾지 말아야 한다.
마음은 한결같기 때문에 언제든지 망妄을 비워버리고 진眞에 돌아가
도안道眼만 밝으면 소분지계小忿持戒따위가 어떻게 마음의 빛을 흐리게 할 것인가.
위산嚫山선사가 말하기를 "다만 올바른 안목만을 귀히 여김이오,
행리처行履處 정도는 대수롭지 않다"라고 하였다. 그러니 선禪을 공부하는 이는
먼저 올바른 인因을 심을 줄 알아야 한다. 오계五戒와 십선법十善法과
인과因果와 육도六度 등의 법을 믿음도 올바른 인이 아니니,
자기의 마음이 부처인 줄 믿어 올바른 지견知見을 구하고 나아가
자기의 청정한 도안道眼을 결택決擇하여 대사大事를 그르치지 말아야 한다.
아무튼, 법에 의지하여 부처님의 교시敎示를 어기지 말고 어디까지나 심법心法으로 몸을 닦으며,
심법으로 마음을 찾으며, 심법으로 한없는 중생을 제도하며,
심법으로 법륜法輪을 전하여 불국토를 이루어야 한다.

※ 한국불교 정화역사에 큰 역할을 한 금오당 태전스님(1896~1968).
스님은 16세에 금강산 마하연선원으로 출가해 28세에 예산 보덕사에서 보월스님에게 법을 인가받았다.
김천 직지사와 보은 법주사 조실, 조계종 총무원장 등을 역임하며 법을 폈고
1968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입적했다.

주지스님 법문

선지식

정도 스님 법주사 주지

옛 어른 스님들께서는 항상 대중 생활을 강조하시면서
셋이 길을 가면 그중에 둘은 선지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교에서 선지식은 나를 이끌어 주는 스승을 말하지만
평소 나의 수행이나 생활을 도와주는 도반이나 인연들이
모두 선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선지식 아닌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인연이라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 정성을 다하고
내가 대하는 모든 존재에게 성의를 다하는 것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수행이고 기도이며 보살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향엄香嚴 지한智閑의 오도송悟道頌

장산 스님 법주사 사리각



향엄격죽도香嚴擊竹圖 부분,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향엄 지한香嚴智閑 선사

거년빈 미시빈 금년빈 시시빈
去年貧 未是貧 今年貧 始是貧.
거년빈 무탁추지지 금년빈 추야무
去年貧 無卓錐之地 今年貧 錐也無.

작년 가난은 참 가난이 아니오.
금년 가난이야말로 비로소 가난일세.
작년 가난에는 송곳 곶을 땅도 없더니,
금년에는 송곳조차 찾아볼 수 없네
– 여래선如來禪

작년 가난은 법공法空 즉,
객관이 공적함을 이야기하여 경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말하고 있고,
금년 가난은 아공我空 즉, 주관이 공적하여
'나'라는 아상我相이 없기에 자칫 수행자가
이 정도의 경지에 들기를 두려워 함이 있다.
내가 없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랄까!
그러나, 아공 법공한 경지에서 비로소
'소소영영昭昭靈靈'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니,
맑은 스승이 없다면 감히 이르지 못할 것이다.
'밝고 밝아 신령스럽고 신령한 경지의 마음자리'
우리는 그것을 '불성'이라 하고 원각경에서는
'청정각지' 혹은 '대방광 원각'이라 한다.

아유일기我有一機
순목시이瞬目視伊
약인불회若人不會
별환사미 別喚沙彌
내게 한 기틀이 있으니
눈 깜짝할 사이 '그'를 알아 본다.
누구든지 이것을 모른다면
따로 '초보 수행자'라 부를 것이오.
– 조사선祖師禪 –

위의 두 게송偈頌은 다 오도송悟道頌이지만,
앙산 사형(형님)이 첫 번의 게송은 좋기는 하나,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다하니, 두 번째 게송에서
진여실상眞如實相을 직절直切하게 드러내 보였다.

※ 여래선如來禪이란 부처님께서 친절하게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굽은 활에
비유한 것이고 조사선祖師禪이란
역대 조사스님은 직절하게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말씀을 곧은 활줄에 비유한 것이다.

당당원래불堂堂元來佛
인가무가부認可無可否
능각자성불能覺自性佛
삼계무일상三界無一相
당당한 원래의 부처여! 인가하고 말할 것도 없다.
능히 스스로의 부처임을 깨닫는다면
삼계(욕계, 색계, 무색계)일체 우주의 모든 세계에
한가지(고정된) 형상도 없음을 알리라.
– 茂林 長山 –

법주사 사리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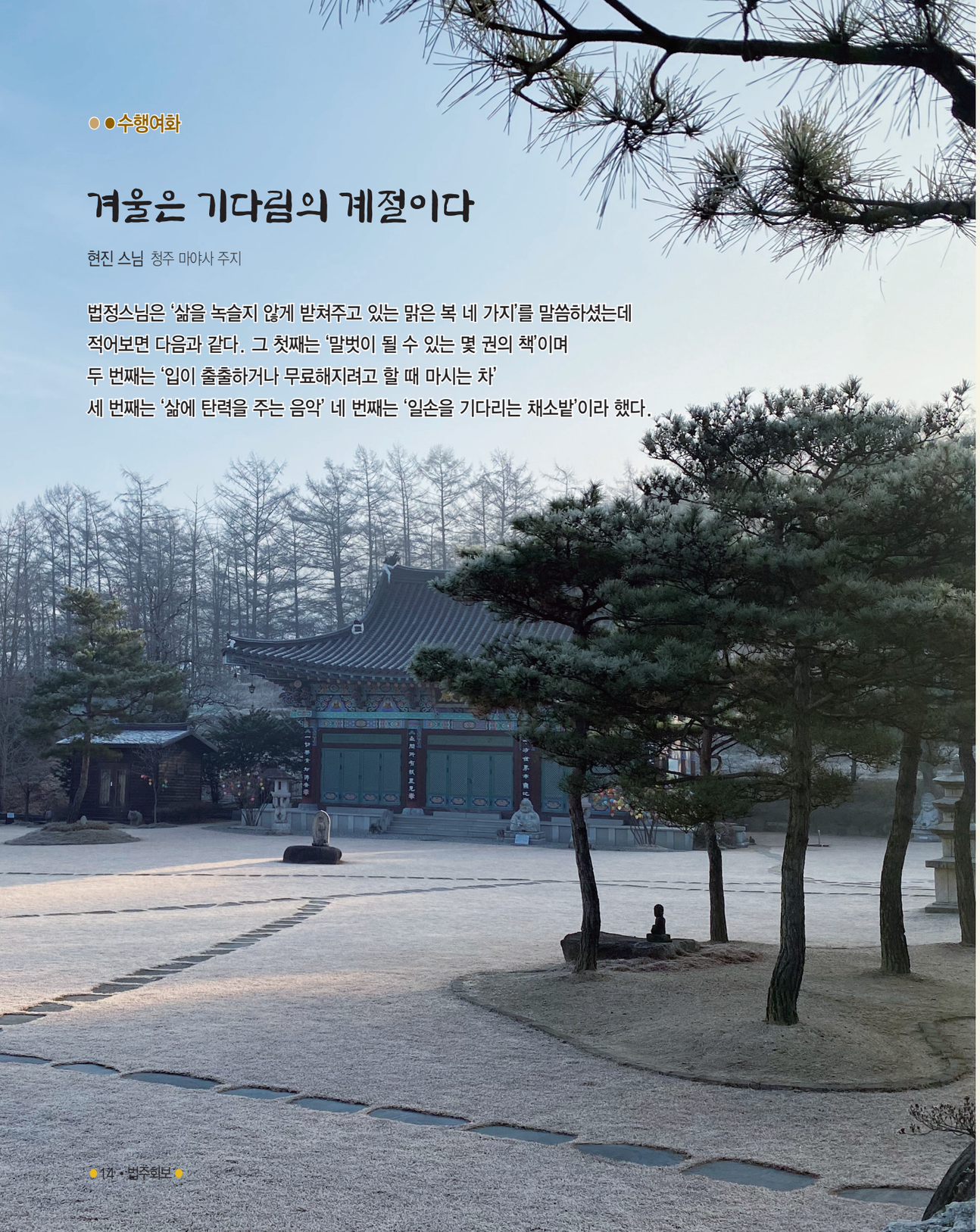
새로운 각오

진정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한국 사회가 지난날의 어둠을 걷어내고 희망찬 길을 열어가기 위해
새로운 지도자가 한국사회의 공정과 번영을 이루고
통일 한국의 기반을 닦아가길 염원합니다.
“작약몽중 두두불하니 금조개안 물물살이라”
어젯밤 꿈속에서는 머리 머리마다 부처이더니 꿈속에서 부처님을 봤다고 하면은
“금조개안 물물살”이다. 이른 아침에 눈을 뜸과 동시에 보살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보살로, 친척과 이웃들에게 보살로,
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까지라도 보살도를 실천해야 한다.
불교는 나를 내려놓고 삼독심을 없애고 나와 남을 하나로 보는
부처님의 참진리을 깨우쳐가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목적은 계,정,혜 삼학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계’는 마음과 몸을 청정히 하고 부처님의 바른 계율을 지켜서 나 자신을 닦는 것이고,
‘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익혀서 바른 기도와 수행의 밑받침을 하기 위함이며,
‘혜’는 이것을 통해 반야 지혜를 얻어서 나와 남에게 회향하는 참 불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 언제 어디서나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말은 나의 관점보다는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보살행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자력 신앙입니다. 남에게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답을 찾아서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공부와 수행하지만
배움이 처음과 끝이 없는 것처럼, 지금부터는 내가 주인이다. 라는



마음으로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며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부처님 도량인 법주사를 빛내주십시오.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신년은 더욱 뜻깊은 한해를 맞이하길 또한 발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불자님께 전합니다.
한국불교는 현재 시대에 변화에 적응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구감소와 종교인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신행 혁신과 전법을 통한 포교는 더욱 중요합니다.
사찰과 신도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요구에 맞는 포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새로운 포교방법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법주사의 대중 일동은 항상 부처님 도량인 법주사를 이루어 나가고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빛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보다 새로운 소망을 안고 또다시 시작한다는 초발심시변정각의 마음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역량을 만들기 위해 충북의 불교 원찰인 법주사는 신도님과 함께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수행여화

겨울은 기다림의 계절이다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법정스님은 '삶을 녹슬지 않게 받쳐주고 있는 맑은 복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그 첫째는 '말벗이 될 수 있는 몇 권의 책'이며 두 번째는 '입이 출출하거나 무료해지려고 할 때 마시는 차' 세 번째는 '삶에 탄력을 주는 음악' 네 번째는 '일손을 기다리는 채소밭'이라 했다.

요 며칠은 봄 날씨처럼 포근했다.
음지에 쌓여 있던 눈더미도 사라졌고
연못의 얼음도 다 녹았다.
지난 한파에 주렁주렁 매달렸던 고드름 풍경도
없어졌다. 어제는 법당 지붕의 잔설이 미끄럼타듯
처마 아래로 우두둑 쏟아졌다.
그 소리에 놀라 뒤 숲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연일 날이 풀어져 꽃들이 때를 모르고
깨어났을까 봐 매화나무 주변을 살피고 왔다.
다행히 꽃망울이 눈을 뜨지 않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동태를 보는 듯 했다.
아마 이런 날씨가 더 이어지면 저도 이른 봄이
온 줄 알고 깨어날 것 같다. 따스한 봄기운 같지만
아직은 음력으로 섣달이다. 설날 명절이 오기 전에
한파나 폭설이 언제 몰아칠지 모른다.
겨울 추위가 아직 끝날 때가 아니란 뜻.
마당의 눈이 녹고 나니까 여기저기에 낙엽들이
보였다. 눈보라 칠 때 숲에서 날아든 것인데
그동안 눈에 덮여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다.
오전 내내 낙엽 쓸며 이곳저곳 청소를 하고 나니,
정갈한 마당이 되었다. 겨울이라 하여 치우고
닦을 게 어찌 없으랴.
오히려 겨울일수록 정리 정돈이 더 확실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몇 년 전 이맘때 오대산을 들렀다가
근처의 사찰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찰은 산중에 자리했음에도 어느 곳이든
티끌 한 점 없었다. 마당은 질서 있게
비질이 되어 있었고 정원도 낙엽 없이
잘 다듬어져 있었다. 매일 매일의 체온과 손길이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토록 완벽한 정리가
될 리 없었다. 비로소 안과 밖이 투명한 산사의
겨울 얼굴과 마주한 것이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사찰은 겨울에도
잘 손질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그때 배웠다.
봄날이 화사하게 화장한 얼굴이라면,
겨울은 화장 없는 순수한 얼굴이라 할 수 있다.
본래의 민얼굴을 드러내는 때가 바로
겨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겨울 풍경이
잘 연출 될 때 진정한 미인이라 할 수 있다.
봄이 되면 여기저기 꽃이 만발하므로
어느 곳이든 아름답고 황홀하다.
그러나 겨울에는 꽃이 지고 맨살이 보이는
계절이기에 단순하고 밋밋할 수 있다.
그래서 겨울 정원을 잘 가꾸어야
진짜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말이 생겼다.
흔히 정원은 가을까지만 공들이는 공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잘 정돈된 겨울 정원은 그 자체가
꽃이며 작품이다. 겨울이라 해서 정원을
어수선하게 방치하거나 제때 할 일을 미루어둔다면
속살을 관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러하므로 겨울 정원이 단정해야 사계절
아름다운 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겨울 마당에 낙엽이 어지럽게 남아있다면
고요와 평화보다는 다소 을씨년스럽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겨울 마당을 보면 그 절 주인의
성미를 알 수 있고, 겨울 정원을 보면
그곳 정원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계절과 상관없이 늘 정돈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 어떤 재주보다 뛰어난 일급 솜씨다.



가을의 흔적을 겨울까지 치우지 않은 정원사가
있다면 그는 낙제 점수에 가까울 것이다.
꽃만 잘 피웠다고 명품 정원이 아니다.
치울 때 치우고 놓을 때 놓으면서 맑은 공간을
지니게 하는 것. 그것 또한 정원사의 영역이다.
자신이 생활하는 그 둘레를 깨끗이 하며
마음을 순화하는 일도 일상의 수행이라 할 수 있다.
불일암의 법정스님이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전개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공간을 맑게 하면 삶 또한 향기로운 것일 테니까.
법정스님은
'삶을 녹슬지 않게 받쳐주고 있는 맑은 복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그 첫째는 '말벗이 될 수 있는 몇 권의 책'이며
두 번째는 '입이 출출하거나 무료해지려고 할 때
마시는 차' 세 번째는 '삶에 탄력을 주는 음악'
네 번째는 '일손을 기다리는 채소밭'이라 했다.
이 네 가지의 맑은 복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나의 삶을 녹슬지 않게
받쳐주고 있는 맑은 복이 몇 가지나 있는지
헤아려본다. 단연코 나는 '티끌 없이 잘 정리된
겨울 마당을 바라보는 일'을 첫 순위에 넣을 것이다.
겨울 정원의 묘미는 여백을 발견하고
즐기는 일이다. 나무 사이의 여백과
매끈하게 드러난 수형을 보고 있으면 힘찬 기운이
느껴진다. 결코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생동하며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란 걸 알 수 있다.
그 누가 가르쳐 준 특별한 지혜라기보다는 자연이
반복해온 순리다. 혹독한 겨울을 잘 견뎌야
찬란한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넌지시



말해주는 것 같다.
따스한 날씨에 기대여 어제는 국화밭을 정리했다.
말라버린 꽃대를 잘라주고 낙엽도 걷어냈는데
아직 이른 작업이지만 몸이 근질근질하여
일을 해보았다. 겨울은 정원 일이 한산하여
몸을 움직일 일이 적어 안달이 날 정도였다.
방에서 움츠리고 있다가 오랜만에 땀을 냈더니
몸이 풀어지는 기분이다. 계절과 상관없이
정원에서 시간 보낼 때가 제일 신나고 즐겁다.
카렐 차페크의 〈초록 숲 정원에서 온 편지〉 중에
다음의 내용이 있다.

"그러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원을 가꾸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에게
1월 한 달은 너무나 길다.
지금이 2월만 되었어도 좋으련만…"

아직 봄이 오려면 더 기다려야 하지만
날씨가 잠깐이라도 풀어지면 때가 아닌데도
생명의 약동을 보고 싶어 정원을 둘러보게 된다.
그러나 겨울은 기다림의 시간을 배우는 계절.
잠시 쉬어가라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휴식일 것이다. 딱히 성급할 일도 아니다.
겨울을 건너뛰고 되는 일은 없으니
그 과정을 응시하며 차근차근 계획하면 될 일이다.
꿈을 꾸려면 잠들어야 하듯 겨울 정원은
봄의 축제를 위해 침묵하는 중이다.



1월 10일 불교대학, 경전반 졸업



1월 11일 보월대선사다례



1월 22일 통알세배



1월 24일 정초기도입재

법주사 솔향기 다도회 회원모집

법주사에서는 문화의 꽃이라 칭송되는
다도회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뜻있는 신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연락처 : 010-5498-5546 (회장)
010-7400-1388 (총무)

법주사 합창단원 모집

불심이 있고 불법홍포에 관심이 있으신 분
"함께해요"

연락처 : 010-5262-0871 (단장)
010-4019-2033 (총무)



눈꽃과 함께하는 법주사

마음도 함께 상쾌해지는

달이 구름에서 나온 것처럼
이전에는 악업을 지은 사람도
지금 다시 악업을 짓지 않으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

법구경

2023. 2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 1.11	2 12	3 13	4 입춘 (11:42) 14 삼재풀이 광명진언기도
5 15 정월대보름 동안거해제	6 16 다도반법회	7 17 합창단법회	8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9 19	10 20 혜정대종사다례	11 21
12 22	13 23	14 24 관음재일	15 25	16 26	17 27	18 28 다라니독송기도 법주회 법회
19 우수 29	20 2.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생전예수재입재 보현회법회 다도반법회	21 2	22 3 신중기도회향	23 4	24 5	25 6
26 7 생전예수재초재	27 8 약사재일 출가재일	28 9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법주사 – 효성병원 간 지정병원협약









■ **대상** : • 법주사 본사 및 말사 소속 모든 승려 및 신도
• 신도(가족포함)는 신도증 소지자에 한함

■ **주요혜택**

• 효성병원 진료 시 진료비 감면 (감면규정에 따름)
• 장례식장 이용시 빈소사용료 면제등 (감면규정에 따름)
• 건강검진비용 할인 (제안내용에 따름)
• 법주사측의 요청 시 건강상담 및 교육 편의제공 등

■ **건강검진시 주요특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시 본인부담액 특별할인
• 종합건강검진비용 10%할인
– 남자 \ 370,000 / 여자 \ 400,000 ⇒ 10%할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 종합검진 시 추가선택 검사비용 할인
– 협정수가 (할인수가)적용
• 뇌혈관 특화검사 (뇌혈관MRA/경동맥MRA) 추가선택 시 특별할인
– 각 \ 200,000 ⇒ 50%할인

■ **위치 및 안내전화**

• 효성병원 본원 :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16 (금천동 162-90)
• 건강검진센터(구강센터) :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44 (금천동 261-107)
• 장례식장 :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94번길 21 (율량동 330-2)

☎ 효성병원 본원 & 건강검진센터(구강센터) : 043-221-5000 ☎ 장례식장 : 043-221-4004

법주사 능인전 나한님 개채改彩 불사







속리산 법주사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 앞에 능인전이 있습니다.
이곳 능인전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에 두분의 보살님 그리고
열여섯분의 나한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곳의 보살님과 나한님은 부처님과 같이
금으로 옷을 입고 계시지 않고
색이 있는 옷을 입고 계셔서
이러한 옷을 새로 입혀드리는 불사를
개채改彩라고 말합니다.
금번 법주사 능인전 개채불사는
보살님 2분과 나한님 16분에게
새롭게 옷을 해드리는 것으로
이러한 중생들의 불사의 마음이
나한님들께 닿아 불사의 인연 중생들에게
그 공덕이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여 개채불사와
기도의 원력으로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 **문 의** : 원주실 : 043-543-4755
• **동참계좌** : 농협 3511139-7120-53 법주사
• **동 참 금** : 1인당 **200**만원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법주사에서는 보물 1360호인 법주사 비로자나부처님전에 지극 정성으로
광명진언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자기 자신과 주위를 모두 밝히고 맑힐 수 있는 광명진언기도에
동참하셔서 뜻 하시는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2023년 **2**월 **4**일(음 1월 14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첫째주 토요일)
■ 동참금 : **2**만원

신묘장구대다라니경 독송 기도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라는 다라니 중
"신비하고 미묘한 공덕을 갖춘 위대한 다라니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도 얻고 건강과 행복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　시 : 2023년 **2**월 **18**일(음 1월 28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 동참금 : **2**만원　　■ 장　소 : 법주사 대웅보전



입춘기도



입춘은 처음 찾아오는 절기로서 봄을 알리는 시점인
동시에 역학으로는 새해가 처음 시작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입춘대길이나 소
문만복래 등의 글귀를 써서 기둥이나 대문에 붙이고
한 해의 행운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특히 삼재가 들면 모든 일에 장애가 생긴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 삼재 불공을 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입춘을 맞이하여 법주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지극한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를 봉행하니 적극 동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 **기 도 입 재** : 불기 2567년　**1**월 **29**일(음 1월　8일) 일요일
■ **기 도 회 향** : 불기 2567년　**2**월　**4**일(음 1월 14일) 토요일
■ **기도동참비** : **3**만원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및접수** : 원주실 (043)543-4755

삼재기도



삼재가 들면 모든 일에 장애가 생긴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 삼재불공을 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법주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지극한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를 봉행하니
적극 동참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 **일　　시** : 불기 2567년 **2**월 **4**일(음 1월 14일) 토요일
■ **동 참 금** : 1인 **3**만원(기도비,부적 포함) 오곡비 **1**만원
■ **준 비 물** : 속옷 1벌(착용한 것도 가능)　　※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눌삼재입니다.